

영어·수학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 평가 방안¹⁾

진 경 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송 미 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반 재 천(충남대학교 부교수)**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영어 및 수학 교과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 평가의 실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수준별 수업과 평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총 500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및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준별 평가 방안은 첫째, 부분적 수준별 평가지, 둘째, 전면적 수준별 평가지, 셋째, 혼합 평가지, 넷째, 국가 수준의 수준별 평가지, 다섯째는 수준별 과목 제공 및 그에 따른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부분적 수준별 평가지는 공통 평가지에 일부 수준별 세트 문항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면적 수준별 평가지는 수준별 학급(군)에서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준별로 독립적으로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구안한 점수 조정 방식을 제시하였다. 혼합 평가지는 각 학급에서 다룬 내용을 일정 비율로 출제하여 한 검사지에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다. 국가 수준의 수준별 평가지는 국가 수준의 검사를 두 수준 정도로 출제하여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방안이다. 수준별 과목 제공 및 그에 따른 성적 산출 방안은 동일한 교과목 내용을 난이도와 수준에 맞게 여러 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고 과목 내에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현행 미국식 방식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수준별 수업의 효과와 학생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준별 수업에 따른 평가 방안을 도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현행 내신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제어 : 수준별교육과정, 수준별 평가지

1) 이 논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9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 평가 연구 방안 -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진경애 외, 2009)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jban@cnu.ac.kr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준별 수업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내용과 방법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 조직으로 차별화된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차별화’(Oakes, Gamoran & Page, 1992)를 의미한다. 차별화 수업의 기본 취지는 학습자에게 ‘맞춤 학습’을 제공하자는 의도로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의 제 측면에서 그 처치 방법을 달리 하는 수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따라 반 편성을 하여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 ‘맞춤식 교육’ 및 ‘개별화 학습’을 추구하는 장점이 있지만, ‘수준별 수업을 위한 자료 미흡’, ‘학생들 간의 위화감’ 그리고 ‘수준별 평가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어와 수학과 같이 학생들의 능력차가 많이 날 수 있는 과목의 경우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서는 ‘익힘책’의 형태로, 영어 교과서는 ‘워크북’의 형태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을 위한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수준별 수업의 원활한 시행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준별 수업에서 평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업 내용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맞게 집단 간 서로 다른 데 반하여, 학업성취 평가는 동일한 내용의 평가 문항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즉, 수준별 수업에 대응되는 적절한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업은 차별화하면서도 평가는 공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또한 수준별 수업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평가 내용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수준별 수업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준별 수업이 원래 의도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며 수준별 수업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수학 수준별 수업에 따른 평가 방안을 고찰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준별 수업, 혹은 능력별 반편성은 최근에도 미국이나 영국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준별 집단 편성과 관련하여 Hallam & Ireson(2007)은 영국에서 9학년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반편성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조사하였

다. 능력별 반 편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5%의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다른 반에 배치되며, 다음해에는 그 중 약 25%의 학생들은 정확한 반으로 배치가 되는데 나머지는 계속해서 맞지 않은 수준의 반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반에 배치되기를 희망하고(72%), 8%는 현재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치되기를 희망하여, 6%의 학생만이 현재의 반보다 낮은 수준의 반에 배치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불만과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수준에 적절한 집단에서 수업을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준별 수업은 동일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되, 학생의 수준에 따라 심화/보충내용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보다는 ‘동일성’을 일차적으로 강조하는 방안이다. 지난 약 10년 동안 실시된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수준별 수업의 주요 방해요인 중 하나로 ‘평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상, 중, 하반에서 지도하는 내용은 다르나, 현행 평가제도 하에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내용을 근거로 하여 평가문제나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내용과 평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저하되며, 이것은 상위반 학생들에게 더하다고 한다(김홍원 외, 2004). 또한 교사들은 획일적인 평가 때문에 수준별 학습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며, 평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김미숙 외, 2008). 아무리 학생을 수준별로 집단 편성하여 차별화된 교수학습을 제공한다고 할 지라도 평가체제가 획일적인 학년별 석차, 등급제라면 평가를 위해 교수학습 내용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필평가에서는 공통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수행평가에서 수준별 편성 집단에서 학습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권장하였다. 다시 말해 수준별 집단을 편성하여 수업을 실시하되, 평가는 동일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준별로 달리 평가할 경우, 동학년 학생들의 석차를 어떻게 동등화하여 산출할 것인가에 관한 분명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수준별 집단별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준별 수업에서의 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나 기법들이 소개되었다(김재춘, 1999; 김홍원, 2004; 박선화, 2005). 이 중 한 가지(박선화, 2005)를 살펴보면 수준별 수업의 평가 방안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수준별 수업에 따른 수준별 평가로, 심화반, 표준반, 기초반 각각에 대하여 학생의 수준과 수준별 평가 결과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공통 평가와 수준별 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원적으로 성적을 기록하는 방안이고, 세 번째 방안은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이며, 네 번째 방안으로 절대평가 방식이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기록 방식으로 인해 ‘수준별로 수업하되,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기본 원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바로 이 원칙 때문

에 학교 현장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의미있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의 수준별 수업에 따른 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각 학교에서는 동일 과목에 대하여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평가는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시험을 적용하되 학생의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서로 다른 2개의 검사 중에서 하나의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학교에서는 수준별로 수업하되 평가는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검사(GCSE) 사용하는데 GCSE는 두 수준으로 분리되어 상급 수준의 시험(Upper Tier)을 치를 경우 총 8 단계 중 A* - D 수준에 부여되고, 낮은 수준의 시험(Lower Tier)을 치를 경우에는 총 8 단계 중 C - G 까지의 점수가 부여된다. 학생의 평소 실력이나 어떤 반에 있는지와는 별개로 국가시험이 진행되며, 또한 위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과정을 모두 끝마치기 전에 모듈 시험을 봤을 경우 돌아오는 6월이나 1월에 재시험(re-sit)을 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고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보통 하위반은 foundation paper를 선택하게 되지만, 학교 내의 수준별 반에 따라 어떤 Tier를 볼 것인지 결정하는 학교는 드물다. 절망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생들이 Higher Tier를 목표로 하게끔 하는 게 대부분이고, 실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학생이 Higher Tier로 시험보기를 강력히 원한다면 학교에서도 허용해 준다.

영문학 과목의 Higher Tier와 Foundation Tier 시험문항은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영문학 시험의 경우 두 수준의 시험이 지문은 같고 문항에 답하는 데 필요한 사고력, 문학성, 언어표현 능력의 심도에 따라 차이를 두었으며, 점수에도 차이를 두었다. (<http://www.westminster.org.uk/>)

WILLIAM SHAKESPEARE: <i>Much Ado About Nothing</i>		
1	BENEDICK:	Sweet Beatrice, wouldst thou come when I called thee?
	BEATRICE:	Yea signior, and depart when you bid me.
	BENEDICK:	O stay but till then.
	BEATRICE:	'Then' is spoken. Fare you well now – and yet ere I go, let me go with that I came for, which is with knowing what hath passed between 5 you and Claudio.
	BENEDICK:	Only foul words – and thereupon I will kiss thee.
	BEATRICE:	Foul words is but foul wind, and foul wind is but foul breath, and foul breath is noisome, therefore I will depart unknissed.
	BENEDICK:	Thou hast frighted the word out of his right sense, so forcible is thy 10 wit. But I must tell thee plainly, Claudio undergoes my challenge, and either I must shortly hear from him, or I will subscribe him a coward. And I pray thee now tell me for which of my bad parts didst thou first fall in love with me?
	BEATRICE:	For them all together, which maintained so politic a state of evil that 15 they will not admit any good part to intermingle with them. But for which of my good parts did you first suffer love for me?
	BENEDICK:	Suffer love! A good epithet. I do suffer love indeed, for I love thee against my will.
	BEATRICE:	In spite of your heart, I think; alas, poor heart! If you spite it for my 20 sake, I will spite it for yours, for I will never love that which my friend hates.
	BENEDICK:	Thou and I are too wise to woo peaceably.
Either	1	How does Shakespeare make this conversation between Benedick and Beatrice so entertaining? [20]
Or	2	You are Claudio. You have just been challenged to a duel by Benedick. Write your thoughts. [20]

[그림 1] GCSE English Literature Foundation Tier

WILLIAM SHAKESPEARE: <i>Much Ado About Nothing</i>		
1	BENEDICK:	Sweet Beatrice, wouldst thou come when I called thee?
	BEATRICE:	Yea signior, and depart when you bid me.
	BENEDICK:	O stay but till then.
	BEATRICE:	'Then' is spoken. Fare you well now – and yet ere I go, let me go with that I came for, which is with knowing what hath passed between 5 you and Claudio.
	BENEDICK:	Only foul words – and thereupon I will kiss thee.
	BEATRICE:	Foul words is but foul wind, and foul wind is but foul breath, and foul breath is noisome, therefore I will depart unkissed.
	BENEDICK:	Thou hast frighted the word out of his right sense, so forcible is thy 10 wit. But I must tell thee plainly, Claudio undergoes my challenge, and either I must shortly hear from him, or I will subscribe him a coward. And I pray thee now tell me for which of my bad parts didst thou first fall in love with me?
	BEATRICE:	For them all together, which maintained so politic a state of evil that 15 they will not admit any good part to intermingle with them. But for which of my good parts did you first suffer love for me?
	BENEDICK:	Suffer love! A good epithet. I do suffer love indeed, for I love thee against my will.
	BEATRICE:	In spite of your heart, I think; alas, poor heart! If you spite it for my 20 sake, I will spite it for yours, for I will never love that which my friend hates.
	BENEDICK:	Thou and I are too wise to woo peaceably.
Either	1	What do you find so entertaining about this conversation between Benedick and Beatrice? [14]
Or	2	You are Claudio. You have just been challenged to a duel by Benedick. You might be thinking about: • your treatment of Hero • your feelings about Benedick. Write your thoughts. [14]

[그림 2] GCSE English Literature Higher Tier

미국의 수준별 수업은 수준에 따라 계열화된 과목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고 평가는 선택한 과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명과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의 수준별 수업이 학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동일한 영역 내에서 수준에 따라 다른 과목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수학 과목의 경우를 예를 들면 ‘기하’와 ‘기하 Honor’과목이 구분되어 있다. 이 두 과목은 실제로 동일한 교재를 사용한다. 다만 ‘기하 Honor’과목에서는 수준을 매우 높게 하여 가르친다. ‘기하’과목에서는 원리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지만 ‘기하 Honor’과목에서는 복잡한 원리에 대한 증명 내용을 가르친다. 이처럼 동일한 교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하 Honor’에서는 높은 수준의 내용을 세세하게 가르치며, 성적표에는 이 두 과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학생이 Honor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교사의 추천서, 학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교사는 Honor과목을 신청한 학생의 선수과목에서의 성적을 보고 Honor과목 이수여부를 허용한다. 정규과목과 Honor과목을 별개의 과목으로 강의하므로 시험 문항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영어 수준별 교과목의 예를 들면, Basic English, English (Regular), English Honor, English AP 등으로 구분된다. Basic English는 9~11학년과정에서 기본 영어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과목명은 Basic English 9, Basic English 10, Basic English 11으로 개설된다. ‘Basic’이란 이름이 들어간 과목에서는 각 학년에서 배워야 할 정규 영어과목보다 수준을 낮추어 가르친다. 예를 들어 마크 트윈의 작품에 대해 정규 영어과목에서 배울 때는 작품의 원문으로 배우게 된다. 그러나 ‘Basic’과목에서 마크 트윈을 배울 때는 원문이 아닌 요약판으로 배우게 된다. 그런데 이들 ‘Basic’과목은 일반적으로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정규 영어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정규 4년제 대학진학보다는 지역학교나 비즈니스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다. English (Regular)는 보통 각 학년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으로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인정된다. English Honor과목의 경우 English (Regular)보다 심화된 과목이다. 이 과목을 신청할 경우 학생들은 정규과목보다 심도 있는 수업을 받게 된다. English AP과목은 대학수준의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다. AP과목을 이수한 후에 교사가 시행하는 시험을 치르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학생들이 컬리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AP검사를 치러서 점수를 취득하게 된다(Iowa City West High School, 2009).

Ⅲ. 수준별 평가 실태 조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수업에 따른 평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각각 250개 학교, 총 500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과 평가 실태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 대상

수준별 평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과부 수준별 수업 관련 연구학교를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각각 250개 학교, 총 500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과 평가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학교는 전수조사이며, 일반학교의 경우는 전체 중학교

3,078개교, 고등학교 2,190개교 중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규모와 수준별 수업 실시 비율을 고려하여 2단계 비율층화 확률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교사용 설문은 표집된 학교마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 영어 담당교사 2명씩, 고등학교의 경우 수학, 영어 담당교사 1명씩 총 1,5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학생용 설문은 학교마다 1개 학급씩(학급당 학생 수 40명 기준) 학교급별 10,000명씩 총 20,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총 1,232명으로 교사 전체 설문대상의 82.1%가 응답하였고, 학생의 경우는 전체 설문대상의 78.3%, 총 15,661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2. 조사 도구

수준별 수업과 평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교사용과 학생용 2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설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과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구성

구분		교사용		학생용
배경변인		학교소재지		학교 소재지
		학교급		학교
		학급수		학년
		담당교과, 담당학년		성별
		교직경력		-
		연령		-
수준별 수업	실시	실시 여부		실시 여부
		실시 시간 수		만족도
	집단편성	집단편성 방법		집단 수준의 적절성
		집단편성 기준		희망 집단의 수준
		집단편성 횟수		자신의 수준
평가	평가 방식	지필평가 수행평가	평가 수준의 적절성	
			선호하는 평가 방식	
			요구 사항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 기록		-	
	문제점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		-

3. 조사 결과

가. 배경 변인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총 1,232명으로서 학교소재지별로는 광역시 소재가 34.7%, 중·소도시가 33.6%, 서울특별시가 19.1%, 읍·면지역이 12.7%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64.9%, 고등학교 교사가 35.1%이었고, 수학 담당 교사와 영어 담당 교사는 각각 51.1%, 48.9%이었으며, 교직경력은 ‘20년 이상’이 28.6%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이 24.4%로 그 다음 순이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3.8%였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3.1%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총 15,66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는데, 중학생이 47.5%, 고등학생이 52.5%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49.4%, 여학생이 50.4%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 1학년이 50.4%, 2학년이 37.4%, 3학년이 12.4%로 1학년 학생이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고등학교 역시 1학년이 78.2%로 가장 많았고,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19.0%, 2.8%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입시에 부담이 있는 3학년 학생이 가장 적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수준별 수업 실시 여부

교사용 설문조사에서 소속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시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7.0%가 ‘실시한다’라고 답하였고, 3.0%가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96.4%, 고등학교의 98.1%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과별로 살펴보면 수학의 경우 97.1%, 영어의 경우 96.8%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수준별 이동수업 학생 평가 방식

수준별 이동수업 시행 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필평가는 동일하게, 수행평가는 수준별 평가’ 28.0%, ‘지필평가는 수준별 평가, 수행평가는 동일하게’ 6.0%,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수준별 평가’ 3.2%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수업 및 평가에 대한 더 부담을 갖고는 있으나 실제로 지필평가나 수행평가에서 수준별 평가를 하는 경우는 37.7% 정도였다.

〈표 2〉 학교급별 수준별 이동수업의 학생평가 방식: 교사 설문

단위: 명(%)

구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동일하게	지필평가는 동일하게, 수행평가는 수준별 평가	지필평가는 수준별 평가, 수행평가는 동일하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수준별 평가	전 체
중학교	462 (59.0)	248 (31.7)	41 (5.2)	32 (4.1)	783 (100.0)
고등학교	298 (69.8)	91 (21.3)	31 (7.3)	7 (1.6)	427 (100.0)
수학	406 (65.5)	158 (25.5)	38 (6.1)	18 (2.9)	620 (100.0)
영어	354 (60.0)	181 (30.7)	34 (5.8)	21 (3.6)	590 (100.0)
전체	760 (62.8)	339 (28.0)	72 (6.0)	39 (3.2)	1,210 (100.0)

교사 설문 결과 지필평가에서 수준별 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동일평가지’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부분적 수준평가지’ 14.9%, ‘혼합평가지’ 7.3%, ‘전면적 수준평가지’ 1.0%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혼합 평가지는 모든 수준별 학급에서 다른 내용을 일정 비율로 출제하여 한 검사지에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고 수준별 평가지는 ‘수준에 맞는 각기 다른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표 3〉 지필평가의 수준별 평가 방식: 교사 설문

단위: 명(%)

구분	동일평가지	부분적 수준평가지	전면적 수준평가지	혼합평가지	전 체
중학교	598 (76.2)	117 (14.9)	9 (1.1)	61 (7.8)	785 (100.0)
고등학교	333 (78.0)	63 (14.8)	3 (0.7)	28 (6.6)	427 (100.0)
수학	458 (74.1)	93 (15.0)	6 (1.0)	61 (9.9)	618 (100.0)
영어	473 (79.6)	87 (14.6)	6 (1.0)	28 (4.7)	594 (100.0)
전체	931 (76.8)	180 (14.9)	12 (1.0)	89 (7.3)	1,212 (100.0)

혼합평가지 구성할 때 수준별 내용의 비율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설문해본 결과를 종합하면, ‘기본반 내용’을 53.58%로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하고, ‘보충반 내용’은 27.23%, ‘심화반 내용’은 20.43%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표 4〉 참조). 〈표 4〉는 혼합 평가지 비율에 대한 교사 응답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4〉 바람직한 혼합평가지 구성 비율: 교사 설문

구분	보충반 수업내용		기본반 수업내용		심화반 수업내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학교	26.54	11.21	54.52	14.93	20.31	8.67
고등학교	28.56	13.33	51.76	15.31	20.67	8.19
수학	28.13	11.71	52.72	13.74	20.29	7.79
영어	26.22	12.29	54.51	16.43	20.58	9.26
전체	27.23	12.02	53.58	15.11	20.43	8.51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준별 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수준에 맞는 각기 다른 시험’을 선호하는 학생들보다(약 37%) ‘동일한 수준의 시험’을 선호하는 학생들이(약 47%) 다소 많았다(〈표 5〉 참조).

〈표 5〉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준별 평가 방식

구분	선호 방식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동일한 수준의 시험	3,002	(46.9)	3,734	(47.6)
	수준에 맞는 각기 다른 시험	2,369	(37.0)	2,928	(37.3)
	상관없음	1,035	(16.2)	1,185	(15.1)
	전체	6,406	(100.0)	7,847	(100.0)
영어	동일한 수준의 시험	2,841	(46.1)	3,783	(47.9)
	수준에 맞는 각기 다른 시험	2,223	(36.1)	2,930	(37.1)
	상관없음	1,097	(17.8)	1,190	(15.1)
	전체	6,161	(100.0)	7,903	(100.0)

수준별 평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추후 수업에 반영하며 차기 수준별 집단을 편성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부모에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표 6〉 참조).

〈표 6〉 수준별 평가 정보 활용도: 교사 설문

구분	단위: 명(%)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생들에게 피드백	48 (4.1)	800 (68.6)	318 (27.3)	1,166 (100.0)
추후 수업에 반영	44 (3.8)	771 (66.6)	343 (29.6)	1,158 (100.0)
학부모에게 알림	683 (61.7)	374 (33.8)	50 (4.5)	1,107 (100.0)
수준별 집단 편성에 활용	150 (13.2)	624 (54.9)	362 (31.9)	1,136 (100.0)

수준별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현황에 대한 개방형 문항에 응답한 교사(512명)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면, 일괄적인 점수 또는 석차를 기록하는 경우가 78.3%로 가장 많았고, 11.2%의 교사들은 특기사항란에 최상위권 학생 또는 최하위권 학생에 대하여 수행 능력이나 학습태도를 기록하거나 수준별 이수 여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준별 평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 교사들(291명)의 의견을 살펴보면, ‘수치화된 점수보다는 서술형 문장으로 주로 향상도에 관한 칭찬위주 등의 특기사항을 기재’(28.5%),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25.4%),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15.5%)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수준별 이동학습과 평가에 대한 개방형 문항에 응답한 교사(336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면, ‘현실적인 어려움(교원의 수, 업무 부담, 학급당 학생 수 등) 해소’(41.1%), ‘수준별로 차별화된 평가 방법과 결과처리 시스템의 구축’(29.8%),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마련’(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라. 결과 요약

설문 결과에 의하면 수준별 집단에 따라 수업내용, 교재와 학습 자료, 과제, 교수 방법 등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수준별 평가를 한다는 응답보다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수준별 평가는 ‘부분적 수준평가지’(14.9%), ‘혼합평가지’(7.3%), ‘전면적 수준평가지’(1.0%)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각기 다른 시험’보다 ‘동일한 시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준별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경우는 특기 사항란에 수준별 이수 여부를 기록하거나 일부 학생의 수행 능력이나 학습태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기록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 안함’이나 ‘현행 방식’ 또는 ‘점수보다는 특기 사항을 기록’ 등이 제안되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하여 집단을 편성하고 차별화된 교수학습 내용을 제공하더라도 학년별로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들은 동일 학년 전체 학생 중의 석차를 기록한 내신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준별로 교수학습 내용을 달리하는 비중은 높지 않게 되고 이것이 평가에도 반영되어 수준별 평가 내용도 크게 차별화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평가가 아니라면 수준별 집단 간의 성적을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성적을 조정하는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차별화된 교수학습 내용과 차별화된 평가 방식을 활용할지라도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IV. 영어·수학 수준별 수업에 따른 평가 방안

본 장에서는 수준별 평가 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영어·수학 수준별 집단 간 공통 평가 방안과 수준별 집단에 따른 수준별 평가 방안으로 구분하고 평가지 구성 방안 및 점수 산출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공통 평가

가. 공통 평가지

공통평가지는 수업은 수준별로 하되 평가는 수준에 상관없이 공통된 문항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나, 이는 학습한 내용을 평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타당성의 문제도 제기 될 수 있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문항을 풀도록 되어 있어 변별력의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공통평가지를 구성하되 ‘하’ 수준에 맞추어 출제를 하거나 ‘중’ 수준에 맞추어 출제를 하는 방침을 고수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상’ 반에 속한 학생들의 동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공통평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현재 우리 교육과정의 수준별 수업은 공통의 교육과정 목표를 추구하되 수업만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므로, 수업은 수준별로 그러나 평가는 일제식으로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나. 혼합(조합) 평가지

이 평가 방법은 모든 수준별 학급에서 다른 내용을 일정 비율로 출제하여 한 검사지에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상반 내용 30%, 중반 내용 40%, 하반 내용 30%로 구성하거나 다양한 비율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교사들은 ‘기본반 내용’을 53.58%로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하고, ‘보충반 내용’은 27.23%, ‘심화반 내용’은 20.43%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장 연구 결과 가장 선호되는 조합의 비율은 상반 10%, 중반 60%, 하반 30%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경북고등학교, 2009). 대체적으로 기본 내용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상반 내용 보다는 하반 내용을 다소 많이 반영할 것을 학교 현장에서는 제안하고 있다. 혼합 평가지 구성시, 2007 개정 교육 과정의 수학 및 영어 교과서의 수준별 워크북에 제시되어 있는 문항을 반영한다면 수준별 문항의 난이도나 내용의 적정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수준별 평가지

수준별 평가지란 수준별 수업의 내용이 반영되어 수준별로 서로 다른 평가지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는 일제식 평가(공통 평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크게 부분적 수준별 평가지와 전면적 수준별 평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분적 수준별 평가지는 평가 문항의 일부가 수준별로 다르게 출제되는 경우이고, 전면적 수준별 평가지는 수준을 반영하여 수준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평가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가. 부분적 수준별 평가지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 연구학교에서 수준별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방법이다. 정기고사 평가지에서 대부분의 문항은 공통으로 출제하고 일부 문항은 상반, 중반, 하반 수준의 문제를 세트 문항으로 출제하여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적합한 문항을 선택하여 푸는 방식이다. 세트 문항 평가지란 문항 중 일부 문항을 같은 내용 영역의 서로 다른 수준으로 여러 개로 제시하는 형태의 평가 방식을 말한다. 이 때, 같은 내용 영역의 평가 문항으로 여러 개 제시되는 문항들을 세트 문항이라고 부른다. 대개의 경우 기초, 기본, 심화의 3단계 수준으로 문항이 구별된다.

세트 문항 평가지는 학생의 문항 선택권의 유무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생의 문항 선택권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수준에 따라 독립적인 검사지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통 문항을 포함한 수준별 독립 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평가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의 문항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는 이는 바람직한 평가지 제작 방식은 아니다. 이에 비해 학생 선택권이 있는 경우는 특별히 주어진 문항들 중 적어도 한 문항을 학생이 선택하여 그에 대한 답을 하는 평가 방식이다. 수준별로 문항의 배점이 다르므로, 선택 문항에 따라 총점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모든 세트 문항에서 심화 수준의 문항을 선택하고 만점을 받은 경우는 100점이지만, 세트 문항에서 기초나 기본 수준의 문항을 선택한 경우는 만점이 줄어들게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래는 전라북도 인문계 고등학교인 J고등학교의 2008년 1학기 수학 중간고사의 세트 문항과 대전의 E중학교의 2009년 1학기 영어 기말고사의 세트 문항이다.

J고등학교 1학년 (2008-1학기 중간고사)

※ 15번 문항은 수준별 문제입니다.

<보충>은 15번, <기본>은 16번, <심화>는 17번에 마킹하시오. (단, 문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두 문제 이상을 답할 경우 틀린 것으로 간주함.)

15. 아래의 세 문항 중 하나만 선택하여 답하시오.

<보충> 두 조건 p, q 를 만족하는 집합을 각각

$P = \{x | -4 \leq x \leq 2, x \geq 5\}$, $Q = \{x | x \geq a\}$ 라고 할 때, q 가 p 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의 최댓값을 구하여라. [4점]

- ① -4 ② -2 ③ 2 ④ 4 ⑤ 5

<기본> 두 조건 $p: -4 < x < -1$, $q: |x-2| < a$ 에 대하여 p 가 q 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의 최솟값을 구하면? [5점]

- ① 3 ② 4 ③ 5 ④ 6 ⑤ 7

<심화> 두 조건 $p: x+y > \frac{k}{3}$, $q: x > 3, y > 3$ 에 대하여 p 가 q 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의 최댓값을 구하면? [6점]

- ① 6 ② 9 ③ 12 ④ 15 ⑤ 18

E중학교 1학년 (2009-1학기 기말고사)

※ 다음은 수준별 주관식 문제입니다.

자신 있는 문제를 골라 답지의 서술형 답란에 답을 쓰시오. (모든 문제에 답을 한 경우는 정답 중에서 상위 문제의 점수를 인정합니다.)

주관식 1

[주관식 1-상]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오.(5점)

(throw / to / I / am / a / party / going)

→ _____

[주관식 1-중] 주어진 뜻이 되도록 빈 칸을 채우시오.(4점)

What are you _____ this Saturday?

(너는 이번 토요일에 무엇을 할 것이니?)

[주관식 1-하] 주어진 뜻이 되도록 빈 칸을 채우시오.(3점)

I am _____ to go to a concert on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콘서트에 갈 것이다.)

지필 검사에서 세트 문항은 선택형과 서답형이 모두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항의 배점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또한 복수 선택을 허용할 수도 있다. 제시된 세트 문항 중 두 개 이상에 답해도 되지만, 옳은 답을 한 문항 중 최고 배점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아래는 전라북도 인문계 고등학교인 J고등학교의 2009년 1학기 중간고사의 세트 문항으로 서답형이며 학생의 복수 선택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J고등학교 1학년 (2009-1학기 중간고사)

※ 주관식 5, 주관식 6은 각각 세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된 수준별 문제입니다.

세 수준의 문항 중 두 개 이상을 답해도 되며, 옳은 답을 한 문항 중 최고배점만을 인정합니다.

단, 반드시 선택형을 명시하고 답을 기록하십시오.

주관식5. <보충>

$(x+y)^2(x-3y)^2$ 을 전개하였을 때, 모든 계수들의 합을 구하여라. (4점)

주관식5. <기본>

$(1+2x+3x^2+4x^3+\cdots+101x^{100})^3$ 을 전개하였을 때, x^4 의 계수를 구하여라. (5점)

주관식5. <심화>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등식

$$(x^2+x-1)^{10}=a_0+a_1x+a_2x^2+\cdots+a_{19}x^{19}+a_{20}x^{20}$$

이 성립할 때, $a_2+a_4+\cdots+a_{18}+a_{20}$ 의 값을 구하여라. (6점)

나. 독립적인 검사지

1) 전면적 수준별 평가지

전면적 수준별 평가지는 학년별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내신 체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겠으나, 수준별 수업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새로운 입시 체제나 변화된 내신 체제, 또는 새로운 형태의 수준별 수업 혹은 교육과정 하에서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학년을 학생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때로는 2 수준 혹은 4 수준을 나누기도 함) 3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 2-3 학급을 배정하여 군으로 이동 수업을 시행한다. 각 수준별 학급군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 수준 및 방법이 다른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준별 수업을 위하여 학생들을 구분한 수준의 수만큼 여러 가지 종류의 평가를 활용하는 경우, 학생들의 성적을 기록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학생이 소속된 수준(상, 중, 하 등)과 그 반에서 학생이 성취한 점수 또는 평어를 함께 기술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 수준의 반에서 학습한 학생이 80점을 받았으면, ‘상-80’ 또는 ‘상-우’로 표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의 성적을 기록하는 경우, 다른 수준에 속한 학생간의 상대 비교가 불가능하다. 학교 내에서 상대적인 서열을 매겨야 할 경우, <표 7>에 예시된 바와 같은 방식에 의해 해결 가능할 것이다. 단, 상대비교표는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방식 1에서 상 수준에서 우를 받은 학생과 중 수준에서 수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큰 학교에서는 방식 1, 수준 차이가 비교적 크기 않은 학교는 방식 2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표 7> 수준간 상대비교표의 예

학생이 소속된 반	방식 1			방식 2		
	상	중	하	상	중	하
학생이 취득한 평어	수			수		
					수	
	우	수		우		수
					우	
	미	우	수	미		우
					미	
	양	미	우	양		미
					양	
	가	양	미	가		양
					가	
		가	양			가
			가			

둘째, 여러 종의 수준별 평가지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학생 전체를 통틀어 단일 점수를 산출하여 개별 학생의 점수를 기록하는 방안이 있다. 수준별 평가지에 포함된 고유문항들이 평가하는 내용이 상이하다가 보다는 문항 풀이에 요구되는 인지 행동에 차이가 있어서 난이도가 상이한 문항들이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단일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

여 만점을 차별화하거나 공통문항을 통해 통계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준별 평가지의 만점을 차별화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상, 중, 하의 만점을 각각 100점, 90점, 80점으로 차별화하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는 단일 점수의 차이에 수준의 차이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평가지를 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 수준 평가지에서 90점을 받은 학생과 중 수준 평가지에서 90점을 받은 학생의 능력이 동일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교사들이 다른 평가지에서의 점수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합의를 통하여 점수를 연계시키는 합의적 조절을 활용할 수 있다. 각 평가지의 문항을 검토하고 평가지별로 요구되는 능력의 수준을 비교한 후 합의에 의하여 수준별 평가지의 점수간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동료 교사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합의할 수 있는 판단을 도출하여야 한다.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수준별 평가지간 점수 조절이 이루어지므로 논란의 야기될 소지가 있다.

통계적으로 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평가지에 일정 비율의 공통문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고(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공통평가지가 요구됨), 공통문항에서 보인 각 집단의 점수 차이를 준거로 하여 나머지 문항(고유 문항)에서의 점수, 전체 평가지의 점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먼저 공통문항에 대한 전체 집단의 평균과 각 집단별 평균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들에 의해 조정된 점수를 산출한다.

(1) 개별 점수 = 공통문항 점수 + 수준별 고유문항 점수 +

$$(\text{공통문항의 집단 평균} - \text{공통문항의 전체 평균}) \times \frac{\text{고유문항의 수}}{\text{공통문항의 수}}$$

(2) 개별 점수 = 공통문항 점수 +

$$(\text{수준별 고유문항 점수} \times \frac{\text{공통문항의 집단평균}}{\text{공통문항의 전체평균}})$$

첫 번째 공식은 검사점수 동등화에서 활용되는 방식 중 가장 간단한 평균-동등화를 응용한 것으로, 공통문항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이를 활용하여 점수를 조정한다. 수준별 평가지 전체의 점수 차이에는 집단간 능력 차이와 수준별 고유문항 간 난이도 차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해하기 위해 공통문항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이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중 집단이 치른 중 수준의 평가지 중에서 고유문항의 평균이 77점이고, 하 집단이 치른 하 수준의 평가지 중에서 고유문항의 평균이 72점이라면, 두 평균의 차이 5점에는 두 집단의 능력 차이와 두 수준의 고유문항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 공통문항에 대해 중 집단의 평균이 75점이고, 하 집단의 평균이 65점이

면 두 집단의 능력 차이가 10점 만큼 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 집단이 하 수준의 고유 문항을 풀면 평균이 82점($=72+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중-하 고유문항의 난이도 차이는 5점($=82-77$) 만큼이 된다. 동등화할 때 기준이 되는 집단 또는 검사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점수를 조정하려 할 때 중 수준 집단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으나, 수준별 집단의 수가 세 수준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첫 번째 공식을 전개하였다. 또한 문항 수에 따라 점수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식에 고유문항의 수와 공통문항의 수를 반영하였다.

두 번째 공식에서는 공통문항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전체 평균의 비를 활용하여 수준별 고유문항의 점수에 특정 수치를 곱하게 되는데, 수준별 평가지의 만점을 달리 부여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을수록 공통문항의 평균이 높을 것이므로 상 수준에는 1보다 큰 수치를 곱하게 되고, 중 수준에는 1 정도를 곱하게 되며, 하 수준에는 1보다 작은 수치를 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 간 상대 비교를 위한 방안 또는 단일 점수 산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이 내신성적을 산출하는 체제에서 수준별 평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 수준에 따른 과목별 평가지

향후 대학의 학생 평가 방식이 다양화되고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현재의 단혀진 내신 평가 체제가 개선될 경우 이와 같이 미국식으로 수준별 교과목을 도입하게 되면 수업 및 평가에 있어서 그 효율성 및 적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가 많이 나는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과목은 동일 과목 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별로 다양한 교과목(기본, 보통, 심화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수준별로 다른 교과목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듣고 이에 적절한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학생의 적성과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방식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준에 따라 계열화된 과목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고 평가는 선택한 과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명과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 표준화된 검사지

이 안은 현재 영국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각 학교에서는 동일 과목에 대하여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평가는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시험을 적용하되 학생의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서로 다른 2개의 검사중에서 하나의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우리 환경에 적용한다면, 영국의 국가 수준의 검사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학업 성취도 평가이다. 수준별

수업 및 수준별 평가를 할 때에, 국가수준의 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거론된 적이 있었으나 각 지역 및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시험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영국식으로 우리 학업성취도 시험을 난이도에 따라 복수의 검사지로 제공한다면, 수준별 수업 및 학생 수준과 연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수준별 수업이 적용되는 과목에서 국가수준의 검사를 전 학년에서 두 수준으로 출제 학생들이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5단계로 구성한다면 우수 검사지의 성적은 A - C로 부여받고 보통 검사지의 성적은 B - E 부여 받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영어 및 수학 교과와 수준별 수업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의 가장 큰 고민은 수준별 수업에 따른 평가 방안이며, 이에 대한 해법의 실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내신평가제도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의 운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아니다. 현 내신평가제도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통해 서로 달리 가르친 내용을 똑같이 점수로 평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즉, 평가가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평가문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하는 내용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타당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하여 집단을 편성하고 차별화된 교수학습 내용을 제공하더라도 학년별로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들은 동일 학년 전체 학생 중의 석차를 기록한 내신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준별로 교수학습 내용을 달리하는 비중은 높지 않게 되고 이것이 평가에도 반영되어 수준별 평가 내용도 크게 차별화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회수율 및 응답 진정성 등 보편적 설문 의 한계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수준별 집단에 따라 수업내용, 교재와 학습 자료, 과제, 교수 방법 등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수준별 평가를 한다는 응답보다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각기 다른 시험’보다 ‘동일한 시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학교생활 기록부에 수준별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경우는 특기 사항란에 수준별 이수 여부를 기록하거나 일부 학생의 수행 능력이나 학습태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즉 학교 현장에서의 수준별 수업은 동일한 잣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도 이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평가가 아니라면 수준별 집단 간의 성적을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성적을 조정하는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차별화된 교수학습 내용과 차별화된 평가 방식을 활용할지라도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수준별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분적 수준별 평가지, 둘째, 전면적 수준별 평가지, 셋째, 혼합 평가지, 넷째, 국가 수준의 수준별 평가지, 다섯째는 수준별 과목 제공 및 그에 따른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부분적 수준별 평가지는 공통 평가지에 일부 수준별 세트 문항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전면적 수준별 평가지는 수준별 학급(군)에서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준별로 독립적으로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의 점수 산출 방식은 본 연구진이 제안한 점수 조정 방식에 근거한다. 혼합 평가지는 각 학급에서 다른 내용을 일정 비율로 출제하여 한 검사지에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다. 국가 수준의 수준별 평가지는 국가 수준의 검사를 두 수준 정도로 출제하여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방안으로 학업성취도 검사와 연계하여 정책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수준별 과목 제공 및 그에 따른 성적 산출 방안은 동일한 교과목 내용을 난이도와 수준에 맞게 여러 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고 과목 내에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어와 수학과 같이 학생들의 능력차가 많이 나는 교과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수준별 평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대 평가 방식의 내신 체제는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단위 학교별로 학생들의 성적 산출방식에서부터 기록 및 통지 방식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양화 되는 추세에서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 평가 방식 및 성적 산출 방안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학업 성취 결과뿐 아니라 수준별 수업을 통한 학생의 성장 및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수준별 평가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수준별 평가를 통한 다양한 평가 방식의 도입은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독려하며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경복고등학교(2009).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를 통한 학력 신장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교육과정 정책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 교육과학기술부(2008). **수준별 수업 정책 및 보조교과서 활용**. 미출판 원고.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6). **초·중등 영어교육 현황분석**.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4.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혁자(2000).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열린교육연구**, 8(1), 137-158.
- 김미숙(2008). **수월성 제고를 위한 수준별 학습 확대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8-33.
- 김주훈, 김재춘, 박경미, 최진황, 진경애, 정구향, 강운선, 유준희(1998). **제 7차 교육 과정 개정에 따른 영어과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개발, RDM 98-6-2.
- 김재춘(1999).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 운영 방안**. 서울: 교육과학사.
- 김재춘(2009.5.22.). 교과교실제 성공하려면. **중앙일보**, p. 41.
- 김홍원, 조인진, 나장함, 차동춘, 김재춘(2004).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4-17.
- 박기화(1998). 영어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Foreign Languages Education**, 5(1), 105-131.
- 박상욱(2006). 수준별 영어 수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교사 변인중심으로. **영어교육**, 61(2), 25-44.
- 박선화 편(2005).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및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ORM 2005-41.
- 박선화 편(2008).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3학년~10학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8-4.
- 서울시교육청(2009). **서울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 미출판 원고.
- 송해성(1997).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공통영어 읽기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3, 13-42.
- 신인숙(2005).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년과 집단에 따른 인식 비교. **영어교육**, 60(2), 223-243.

- 조난심, 김재춘, 허경철, 박순경(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97-34.
- 조난심, 홍후조, 박순경, 김재춘, 황혜정, 소경희, 김철연(1998).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98-7.
- 조석희, 박성익, 김명숙(2006). **중학교 수월성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 2006-03
- 주영숙, 이용숙, 김영천, 황성원(1998).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내용구성방안 세미나 자료집: 총론편**. 서울: 덕성여대 교육대학원 부설 열린교육연구소.
- 진경애(1998).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영어’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 토론.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내용구성방안 세미나 자료집**. 서울: 덕성여대 교육대학원 부설 열린교육연구소.
- 진경애, 송미영, 김화경(2009).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 평가 방안 연구-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09-5.
- 양정호(2006). 학업성취에 대한 수준별 수업의 효과 -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위계적 선현모형 분석. **제1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6-50.
- Andrews Academy. (2009). *Andrews Academy Bulletin*. MI: Author.
- Hallam, S. & J. Ireson, (2007). Secondary School Pupils’ Satisfaction with their Ability Grouping Placements. *British Educational Journal*, 33(1). 27-45.
- <http://www.andrews.edu/aa/>
- <http://www.iowa-city.k12.ia.us/west/>
- <http://www.saintolaves.net/>
- <http://www.westminster.org.uk/>
- Iowa City West High School. (2009). *Program of studies*. IA: Author.
- Oakes, J., Gamoran, A., & Page, R. (1992). Curriculum differentiation: Opportunities, outcomes, and meanings. In P.W. Jackson (Ed.),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New York: Macmillan.
- Oakes, J. (2005). *Keeping on Track(2nd ed.)*. Yale University Press.

• 논문 접수 : 2010년 5월 1일 / 수정본 접수 : 2010년 6월 6일 / 게재 승인 : 2010년 6월 17일

ABSTRACT

Research on the Assessment System for Math and English Ability-Grouping Classes

Jin, Kyung-Ae(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ong, Mi-Young(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Ban, Jae-Chun(Associat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ility grouping in Math and English classes has been emphasized and implemented in Korean secondary schools in order to enhance the individualized and customized educational contents to the students. Students are moved to the classes in which they are assigned with regard to their achievement for Math and English classes. However, the problem has been raised with regard to ability grouping in Korean school contexts. That is, the classes are offered with different contents based on th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level, however, the students in different ability grouping are assessed with the same criteria and assessment tool. Therefore, the intent of ability grouping is not realized in the ideal way due to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contents of the subjects and the achievement tes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students assessment in the ability grouping, the current research has reviewed the practices of Korean schools and the schools in the U.S. and U.K. with regard to the assessment methods in ability grouping and suggested some approache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ing. First of all, we have suggested to match the contents of the classes and assessment tool either partly or totally different way. When the school adopt the totally different assessment tool for the different classes, there need to be the score adjustments based on the students' ability.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the national-level student achievement test be provided in two or three tiers with regard to different content levels and the schools and the students will choose the appropriate test. Third, we suggest that different courses for English and Math with regard to different contents and achievement levels should be offered rather than ability grouping classes within the same school year.

Key words : ability grouping, students assessment